



한류관광명소 최우수 화장실에 선정된 통일전망대 화장실

변화의 새 바람 한국관광의 1번지- '강원도'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교통과 통신 등이 발달하면서 21세기 최고의 유망산업 중에 하나인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한국 관광의 1번지로 자리잡고 있는 강원도청을 방문하여 관광산업 발전의 가능자인 화장실 문화 개선사업을 들어본다.



많은물 보전과 과장
함 대 식

『옥(玉)의 티』해결에 최선

강원도는 전국 제1의 청정환경도(道)의 자부심을 갖고 철저한 보전과 완벽한 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등 국립공원을 비롯하여 천혜의 경관과 자연 그리고 문화유적을 바탕으로 연간 4천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항상 '옥의 티'로 화장실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99 강원국제엑스포가 변화의 계기

"한국관광의 1번지에 걸맞는 화장실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사님(강원도지사 김진선)의 지시로 화장실 문화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장실문화 대혁신 종합계획」이 세워지고 지난해 속초에서 열린 강원국제관광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관광객 이용이 많은 고속도로 및 국도변 휴게소, 역, 터미널 등 951 개소를 대상으로 화장실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변 환경과 문화적·예술적 조화를 이루고 자연 친화적인 시설로 새롭게 단장하여 휴식과 명상을 하는 쉼터와 만남의 장소로 변하여 관광엑스포를 전후로 강원도를 방문한 23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많은 찬사와 호평을 받았습니다.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등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는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공공 및 다중화장실을 명실상부한 최고의 화장실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강원도청 본관 1층에 위치한 시범화장실(여).

2003년까지 3만3천 개소 화장실 개선계획

화장실 시설이 개선된 일부 휴게소와 음식점 등이 손님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자 이제는 스스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꾸어야겠다는 인식이 차츰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강원도는 금년부터 연간 8,000개소씩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공공 및 다중화장실 3만3천여 개소 화장실을 명실상부한 최고의 화장실로 혁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화장실 문화수준 높이기 시민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매주 금요일을 「화장실 정비의 날」로 정하여 시민 스스로 항상 깨끗한 화장실을 가꾸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군별 추진 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 13억원의 시책촉진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고, 현재 실시 중인 아름다운 화장실 「베스트 10」을 선발하여 시상합니다.

또한 11월중에 화장실 문화수준 높이기 심포지움과 함께 우수화장실 사진 전시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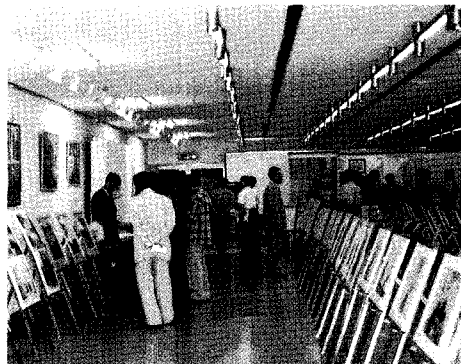
21세기 국제적인 관광지를 향해

화장실을 보면 그 나라의 문화적·경제적인 수준을 알 수 있고 국민의 보건·위생 수준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는 청정하고 수려한 자연환경과 함께 화장실 문화 대혁신으로 어딜가나 깨끗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21세기 국제적인 관광지의 위치를 확고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화장실 관련법 정비가 시급

화장실 문화의 대혁신을 위해서는 도청을 포함하여 일선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개별법에 의거 설치되고 있는 현재의 화장실은 이용자의 실정에 맞지 않고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장실 관련법률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 강원도청과 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아름다운 화장실 사진 및 관련용품 전시회」